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6(土) 17(日)
 흐리고 한두차례 비 24/30℃
 흐리고 비 24/28℃

News

- 광복절 경축사 해설 ②
- 광주 도심 대형 포탄 발견 ③
- 베이징 올림픽 상보 18 19

Books

- 동양인·서양인 왜 다른가 14

Entertainment

- TV '황혼 연애' 인기몰이 ⑧

Wellbeing

- 식품 탐구 - 곤약 13

올림픽으로 더위 달랜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관심은 휴가나 피서보다는 올림픽에 쏠리고 있다.

피서경기 실종... 전남 피서객 50% 급감 TV 중계 짬짬방·호프집엔 손님들 ‘복작’

전남지역 피서지마다 ‘무더위 특수’는 커녕 피서객이 50% 이상 줄어들면서 객실이 남아도는 등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불경기 탓도 있으나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올림픽 이후 피서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도심의 짬짬방이나 호프집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출전하는 경기는 연일 50%를 넘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산한 피서지 = 15일 전남지역 주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 이후 전남도 내 주요 해수욕장과 콘도, 계

곡 등을 찾는 피서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피서지 인근 숙박업소와 식당 주인 등이 울상을 짓고 있다.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지난 9일과 10일 12만6천명의 피서객이 찾아 올림픽 개막 전 주말과 휴일인 2일과 3일 21만5천명 보다 8만9천명(70.6%)이 줄었다.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도 개막 전 4천300명에서 2천800명으로 53.5% (1천500명) 감소했다. 해남 송호 해수욕장도 개막 전 8천명에서 7천명으로 1천명(14.2%) 줄었다.

피서철마다 숙박난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수욕장 인근 숙박시설은 휴가철이 절정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20일)이면 빈방을 찾기 어려웠을 만큼 인기

가 높았던 완도의 A관광호텔은 이달 들어 예년같은 ‘숙박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짬짬방·호프집은 호황 = 짬짬방이나 호프집은 올림픽 경기를 함께 시청하려는 가족·친구 모임이 몰리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광주 H짬짬방 주인은 “짬짬방 내 대형 TV를 갖추고 있는데다 냉방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가족단위 손님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손님 최광리(32·광주지 북구 일동)씨는 “올림픽도 보면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곳이 짬짬방이라고 생각, 아내와 함께 해수욕장 대신 짬짬방을 찾았다”고 말했다.

▶높은 올림픽 시청률 = 한국팀의 선전으로 베이징올림픽의 TV 시청률이 연일 30%를 넘어서고 있다. 박태환이 출전한 남자 수영 자유형 200m, 400m 예선 및 결승전의 시청률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1일 남현희가 은메달을 딴 여자 펜싱 결승전 시청률은 48.9%, 왕기춘이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 유도 결승전은 45%를 기록했다. 또 금메달을 딴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의 시청률은 38.3%로 조사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금남로 ‘만세 물결’ 광주국학원은 광복절인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회원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재연하는 ‘만세와 치기’ 행사를 가졌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미란 오늘 세계를 든다

역도 최중량급 출전... 男양궁 박경모 아쉬운 은메달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 패배 후 고개를 떨군 박경모.

그런 양궁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빅토르 루반(우크라이나)에게 112-113(120점 만점)으로 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국 남자양궁은 올림픽에 첫 출전한 1984년 LA대회부터 이어진 ‘노골드’ 사슬을 풀지는 못했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정재현) 이래 16년 만에 개인전 세번째 은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 첫 금메달을 따는 건 힘들고 힘들었다. 박경모는 2연드까지 58-56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3연드에서 박경모는 1점차(86-85) 추격을 허용했다.

운명이 걸린 4연드 마지막 세 발, 첫 발은 두 선수 모두 9점을 쏘며 1점차 리드가 이어졌다. 점수가 낮은 루반이 두번째 화살을 9점에 쏜 반면 긴장한 박경모가 쏜 화살이 8점과 9점 사이 라인 부근으로 향했다. 마지막 화살은 박경모가 9점, 루반이 10점. 박경모의 11번째 화살이 9점으로 판정되면 113-113 동점을 이뤄 한발씩 더 쏘는 연장 대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판정 결과는 8점이었고, 박경모는 1점차 패배를 당했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펼쳐진 조별리그 B조 4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브라질에 32-

국기별 메달 순위 (15일 19시 16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23	9	5	37
2	미국	14	12	18	44
3	독일	8	2	3	13
4	대한민국	6	8	3	17
5	이탈리아	6	4	3	13

오늘의 빅매치 (16일) <한국시각>

- 핸드볼 남자부**
한국-이집트 (11시45분)
- 역도 75kg 이상급**
장미란 출전 (20시)
- 아구**
한국-일본 (20시)
- 육상 남자**
100m (23시30분)

오늘의 빅매치 (17일) <한국시각>

- 핸드볼 여자부**
한국-헝가리 (09시45분)
-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 (11시09분)
혼영계주 400m (11시58분-오픈출전)

“북한과 전면 대화·경협 기대”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日 역사 직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고 발전의 역사였으며 기적의 역사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복궁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건국 60년, 기

적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만나고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서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으며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3년 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우리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선 안된다”고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력 경고했다. /연말뉴스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는 남부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과학대학
 전남과학대학은 과학, 공학, 경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성분으로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성분으로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성분으로

IOPE